

## 지정학의 재발견과 비판적 재구성 비판지정학

The Rediscovery of Geopolitics and Critical Reconstruction:  
Critical Geopolitics

지상현\*·콜린 플린트\*\*

본 논문은 1980년대 이후의 지정학 연구에서 중요한 흐름을 차지하는 비판지정학에 대한 검토를 주 내용으로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은 Ó Tuathail과 일단의 정치지리학자들은 고전지정학의 정치적 중립성과 연구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지정학을 비판적 시각으로 재구성했다. 이들은 지정학을 문화적 현상으로 규정하고 국가 중심의 지정학 기술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정학 주체가 다층위의 공간 속에서 어떻게 지정학을 전략적으로 이용했는지 분석했다. 비판지정학자들은 담론 분석을 통해 고전지정학 이론과 현대 외교정책을 비판적으로 연구했으며 제국주의로 얼룩진 과거를 극복하고 지정학의 새로운 연구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 학계로부터 가부장적·서구 중심적 세계관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비판지리학 그룹으로부터는 지정학의 경제적 요인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요어: 지정학, 비판지정학, 담론, 고전지정학, 페미니즘 지정학

\* 일리노이 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chi3@illinois.edu

\*\* 일리노이 대학교 지리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Director of Program in Arms Control,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1. 서론

2008년 5월 흥미 있는 사설이 신문지면에 등장했다. 이 사설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과정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의 인권 문제와 탈북자정책에 항의하는 한국의 시민단체들과 티베트·대만인을 상대로 폭력을 가한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이 폭력사태는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 탓에 많은 논쟁을 일으켰으며, 심지어 일부 중국 학생들은 한국의 경찰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 대해 소설가 북거일은 “핀란드의 운명, 한국의 운명”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를 문제 삼으며 한국과 핀란드의 지정학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조선일보》, 2008년 5월 1일자). 북거일은 ‘핀란드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한국 정부의 대응은 한국이 이미 중국이라는 거대한 자장에 휩쓸려가고 있다는 반증이며, 이는 핀란드가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소련의 속국’이었던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핀란드화의 이유로 그는 ‘지정학적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이 중국의 영향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려면 미국·일본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핀란드화된 사회는 어둡고 활력이 없고 검열이 심하다. 늘 이웃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는 사회가 밝고 활기차고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어둡고 활력이 없는 핀란드”가 대안적 컴퓨터 운영체제인 리눅스가 태어난 곳이며, 세계 핸드폰 시장을 주도하는 노키아(Nokia)를 탄생시켰으며, UN이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순위에서 언제나 상위 그룹에 있는 나라라는 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핀란드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 Mamadough and Dijkink(2006)은 “동서진영의 조정자”로 사뭇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냉전시대 핀란드의 중립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핀란드의 지정학적 역할과 위치는 정치적 시각에 의해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북거일의 주장은 강대국인 소련과 인접해 있었던 핀

란드가 소위 ‘속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가정 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이 지정학이라는 용어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지정학적 주장의 이면에는 대개 특정한 가치나 이해관계를 전제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비판지정학이 기존의 지정학과 대답각을 세우며 발달하게 된 바탕이 된다.

북거일의 사설에서 등장한 ‘지정학’이라는 용어는 사회전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구체적으로 지정학의 연구대상, 연구방법론,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존재할 수 있다. 1990년대까지 한국의 지정학 연구는, 지정학을 강대국의 세계 전략 혹은 지전략(geo-strategy)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고전지정학적 연구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김광채, 1977; 임덕순, 1999; Yu, 1993; 이종철, 1997; 이영형, 2004; 이영형·김승준, 2007). 그러나 최근의 연구동향은 연구방법, 연구주제, 공간적 스케일과 이론적 배경에서 과거의 전통적인 접근방법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을 헤게모니 국가의 세계 전략이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미군범죄 및 환경문제라는 지역사회 이슈를 미시 지정학적 시각으로 접근한 연구(최병두, 2003), 에너지 위기에 따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을 지정학과 정치경제학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접근(최병두, 2006), 지정학 주체들의 지정학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견해(김명섭·최정호, 2008; 남상수, 2004), 9·11테러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을 신제국주의(new imperialism)의 발현으로 분석하고, 반제국주의 운동의 성격을 조명한 연구(Choi, 2003) 모두 지정학의 새로운 이해와 지리학계 혹은 사회과학 일반에서 축적된 연구성과를 지정학에 도입하여 지정학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도적인 연구가 있음에도 전문 연구자나 연구논문의 수가 아직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비단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었다.<sup>1)</sup> 지정학

1) Peter Taylor(2000)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지정학을 “주변부의 주변부의 주변부”로 표현하며 지리학, 좁게는 정치지리학 내에서도 지정학 연구가 왕성하지 않음

혹은 정치지리학 분야의 학자의 수가 적었던 한국의 사례와는 다르지만, 영미권에서도 국제정치영역에서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인 지정학이 지리학계에서는 금기시되어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일련의 학자들이 지정학의 부활을 선언했고, 적지 않은 학자들이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의미 있는 연구업적을 이루어내었다. 그중에서도 비판지정학 혹은 지정학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방법론과 연구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Mamadough and Dijkink, 2006: 349; Müller, 2008). 이에 우리는 ‘부활한 지정학’의 주요 분야의 하나인 비판지정학에 초점을 맞추어 지정학의 재구성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본론

### 1) 지정학의 부활과 의미

Flint and Taylor(2007)의 정치지리학 교과서 *Political geography*의 한 장(章)은 지정학을 다시 살펴보는데 할애되고 있다. 이 책에서 Flint and Taylor는 학계에서 지정학을 포기한 것은, 정치지리학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고 비판받는 독일지정학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정학, 특히 독일 지정학은 파멸적인 세계대전을 합리화했다는 이유로 사이비과학이라는 오명을 얻었지만, 지정학이라는 용어가 완전히 사장(死藏)된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 지정학은 국제정치학을 대체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Agnew and Corbridge(1995)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정학의 학문적인 정의나 그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해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정학이라는 단어의 용례(用例)와 학문적 계보에 대해 Flint and

---

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후의 연구성과를 고려할 때 이러한 표현이 현재도 유효하지는 않을 것이다.

Taylor(2007)는 지정학의 부활 이후 몇 가지의 주요한 갈래가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정학은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에 의해 재정의되어 사용되었다. 그에게 지정학이란 강대국의 파워게임이다.<sup>2)</sup> 키신저에게 있어서 지정학이란 파워게임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고자 하는 완곡한 표현이었다. 키신저는 파워게임이라는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 대신에 가치중립적이라고 생각한 지정학이라는 용어를 내세웠다(Howard, 1994). 지정학이라는 용어를 발견하여 재사용한 키신저의 지대한 역할이 있었음에도,<sup>3)</sup> 지정학 부활의 역사는 한 명의 유명한 정치인을 언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Flint and Taylor(2007), Dodds(2001)는 새로운 지정학의 흐름을 언급하면서 과거 지정학에 대한 수정주의적 역사기술, 지정학적 시각으로 전통 외교학에 대한 접근(Grant and Nijman, 1997; O'Loughlin and Anselin, 1991), 세계체제론을 비롯한 정치경제학적 접근(Agnew and Corbridge, 1995; Flint and Taylor, 2007; Harvey, 2003), 비판지정학(Ó Tuathail, 1996; Ó Tuathail et al., 2006) 등을 지정학의 새로운 연구 흐름으로 제시하고 있다. 때로는 Michael Ward 같은 정치학자들이 지정학을 계량 국제정치학(quantitative international relations)의 유용한 연구개념 틀로 사용하기도 했다. 공간 그중에서도 특히 거리(distance)는 지리학적 요소 중에서 손쉽게 계량화될 수 있었기에 국제정치학자들에게 지정학은 기존의 정치경제학적 변수에 공간변수를 더한 계량 국제정치학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다(Ward, 1992).

지정학의 부활은 위와 같은 다양한 접근방법에서 기인한 바 크지만, 본 논문은 비판지정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선 비판지정학이라는 용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Dalby, 1993). 첫째는 1980년대 이후 기존 지정학의 전통적 접근방법과 가정들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

2) 키신저는 지정학을 국제정치에서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강조하는 접근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Kissinger, 1979: 914; Howard, 1994에서 재인용).

3) 지정학의 부활에 대한 키신저의 공헌에 대해서는 Hepple(1986) 참조.

하는 다양한 학문적 조류를 통칭한다. 둘째는 좀 더 좁은 의미의 정의로, Ó Tuathail을 비롯한 일부의 정치지리학자들이 포스트모던 방법론을 받아들여 기존의 지정학과 국제정치학을 담론의 해체라는 방식으로 살펴보는 학문적 동향을 말한다. 이러한 비판지정학에 대한 정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비판적’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비판하는 것인지, 포스트모더니즘 방법론에 기반을 둔 지정학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전유(專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비판지정학 발달 초기의 위와 같은 분류가 현재에도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의 연구는 Ó Tuathail 등의 초기 연구에 비해서 텍스트 분석이라는 고정된 틀을 벗어나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다른 이론적 접근들이 시도되는 특징을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정의를 받아들여기로 한다. 이를 통해 기존 고전지정학과의 차별성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으며, 동시에 협의의 비판지정학이 내포한 문제점이 다른 이론적 접근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판지정학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은 몇 가지 이유에서 기인한다. 첫째, 비판지정학은 과거 지정학이 가지고 있었던 외교정책이나 국가 통치 전략에 대한 서술에서 벗어나 지정학의 영역을 확장시켰기 때문이다(Dodds, 2001). 비판지정학 이전에 지정학은 단순히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그럴듯한’ 방법에 국한된 측면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외교정책을 한 마디로 표현해주는 문구인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살펴보면, 여기서 ‘봉쇄’라는 단어는 공간적 의미가 있는 단어로, 봉쇄라는 단어의 사용 때문에 정치인과 정책입안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미국의 지정학 전략을 지리적 시각화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Dalby, 1990). 어느 지역 혹은 어느 국가가 중요한 지역이며 그러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이 지정학에 따라 정당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봉쇄라는 단어 이면에 존재하는 외교정책, 협상, 군사적 위협, 미군의 배치, 미군이 가지는 치외법권, UN 결의안을 둘러싼 로비 활동, CIA와 같은 안보기관의 활동, 국내정치영역을 통한 논쟁과 같은

복잡한 현실은 문혀버리게 되었다. 기존의 지정학 접근방법 대신, 비판 지정학은 이러한 지정학적 사고방식과 표현방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이런 의미에서 비판지정학은 강대국의 파워게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주체가 어떻게 ‘지정학을 하는지(do)’에 관심을 두게 된다.

둘째, 비판지정학의 궤적을 살펴보는 것은 소위 고전지정학과 과거의 지정학적 사조(思潮)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된다. 비판지정학은 유명한 혹은 악명 높은 지정학자와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기존 지정학자의 사상에 대한 재검토는 비판지정학의 중요한 연구주제였다.

마지막으로 비판지정학은 헤게모니 국가들의 세계 전략의 이면에 있는 숨은 의도들을 밝혀내는 데 유용한 접근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서구 중심/남성 중심적인 시각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비서구학계의 입장에서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도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냉전시대의 지정학이 어떻게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으로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존재하는 동시에, 과연 이러한 담론구조의 분석이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한 정치외교적 상황 혹은 강대국의 지전략으로 야기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어떤 유효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물음이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최병두(2003)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지정학적 실천 현장의 참여자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비판지정학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대안으로서 비판지정학의 한계 중 일부는 세계 전략을 주도하는 국가의 정책뿐만 아니라, 그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 지역, 공동체를 살펴봄으로써 극복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방법의 전환이 최근 비판지정학계를 둘러싼 논의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Müller, 2008).

## 2) 지정학의 간략한 역사

지정학이라는 단어는 1899년 스웨덴의 정치학자인 Rudolf Kjellen에 의해 만들어졌다(Atkinson and Dodds, 2000; Hepple, 1986). 그러나 지정학이라는 단어는 Kjellen보다는 매킨더, 하우스호퍼, 메이한(Alfred Mahan), 스파이크만(Nicholas Spykman) 등의 인물을 떠올리게 한다. 이들은 순수한 학자이기보다는 정치인, 행정가 혹은 학자와 현실 정치를 겸한 인물들이며, 그들의 조국을 위한 특정한 외교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정학을 이용했다. 실제로 지정학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갈 수 있었던 것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걸친 서구열강의 제국주의에 기인한 바 크다(Atkinson and Dodds, 2000). 영국에서는 옥스퍼드 대학 지리학과 교수이며 동시에 영국의회 의원이었던 매킨더(1861~1947)가 심장부이론(Heartland Theory)으로 널리 알려진 그의 세계 전략을 영국사회에 전파하고 있었다. 그는 지리학이 그의 조국인, 쇠퇴해가는 대영제국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Blouet, 1987). 그는 인류의 역사가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인 소위 ‘심장부(heartland)’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고 주장하고, 동유럽을 아우르는 이 지역 힘의 원천을 자원의 분포와 접근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설명했다. 그는 이 심장부를 지배하는 세력은 우크라이나의 흑토지대와 같은 충분한 자원을 가진 유라시아를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러시아는 심장부와 지리적으로 중첩되는 지역이므로 독일세력이 철도를 통해 러시아로 확장되는 것은 영국인인 매킨더에게는 악몽과 같은 일이었다.

한편, 독일의 지리학자이며 뮌헨 대학의 교수였던 하우스호퍼(1869~1946)는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과 라첼(Friedrich Ratzel), 매킨더의 영향을 받아 독일 지정학을 성립했다(Ó Tuathail, 2006). 하우스호퍼는 *Zeitschrift für Geopolitik*(*Journal of Geopolitics*)를 출판하면서, 지리 지식이야말로 독일이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존공간(Lebensraum)을 회복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했으며, 1차 대전의 패배가 독일지도자들이 지리학

에 대해 무지했다는 사실에서 상당 부분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매킨더와 유사하게 하우스호퍼도 세계를 몇 개의 거대 지역으로 구분했다. 그의 pan-region 개념에서 그는 미국은 남·북아메리카 대륙을, 독일은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지배하는 세력 재편을 주장했다. 이 전략은 자원과 시장을 위한 식민지 확보 전략에 다름 아니었다(Flint, 2006). 결국 그는 전후 전범재판 과정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나치연루 의혹은 지속적인 논쟁거리가 되었다.<sup>4)</sup> 하우스호퍼는 히틀러와 독일제국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악한 천재’의 이미지로 남아있고 이는 이후 비판지리학의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Ó Tuathail, 2006; Bassin, 1987). 이 시기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은 지정학 이론이 만들어졌는데 해군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메이한(Alfred Mahan), 힘의 균형과 지리결정론(geographical determinism)을 주장한 스파이크만(Nicholas Spykman) 등이 2차 대전을 전후한 미국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sup>5)</sup>

매킨더와 하우스호퍼의 주장에서 보듯이, 그들은 시각화(visualization)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분류하고 국가의 발전과정을 교통기술의 발전이나 접근성과 같은 지리적 요인으로 단순화해 설명하고 이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 시각화(geographic visualization)도 중요한 고전지리학의 특징 중 하나이다. Ó Tuathail(2006)은 매킨더의 심장지역이론이

4) Bassin(1987)에 따르면, 하우스호퍼와 그의 아이디어는 2차 대전 당시 이미 나치에 의해 버림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나치가 그의 환경결정론을 유톨론으로 이해했고 유톨론자는 국가사회주의의 가장 큰 위협인 공산주의자와 동일시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의 아내가 유대계였으며, 그의 아들이 히틀러 암살 모의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나치 치하에서 그의 입지는 축소되어갔다.

5) 본 논문이 비판지정학을 살펴보는 데 있기 때문에 자세한 지정학 역사는 참고문헌으로 대신한다. 유럽 지정학의 기원(Heffernan, 2000), 지정학의 역사와 널리 알려진 지정학 사상가(Cohen, 2003: 2장; Atkinson and Dodds, 2000), 비판지정학의 시각으로 고전 지정학자를 비판(Ó Tuathail et al., 2006: 2, 3장), 1945년 이전의 지정학과 2차대전 이후를 비교(Flint, 1999), 지정학의 ‘창시자들’의 삶(Ó Tuathail, 1996: 1장).

&lt;표 1&gt; 고전지정학의 특징

학자들의 사회적 위치	백인, 남성, 엘리트, 서구 중심의 지식
남성주의적 시각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알고 있음”
분류/구분	영토 자체가 가치이며 동시에 의미
‘객관적인’ 이론, 역사 인식	외교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보편적인 진리
단순화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구조
국가 중심적 시각	국가, 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학

자료: Flint(2006), *Introduction to Geopolitics*, New York: Routledge p.17.

메르카토르 도법의 시각화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심장지역이론은 메르카토르 도법을 기반으로 하여, 핵심지역(pivot area: 동유럽), 내부/주변부 초승달지역(inner or marginal crescent: 유라시아 대륙), 외부 지역/고립된 초승달 지역(outer land or insulated crescent: 아메리카 대륙과 오세아니아)을 ‘절대자의 시각’, ‘전체를 조망하는 방식으로’ 개략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매킨더는 그의 거대 이론과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우 단순화된 역사와 인류문명에 대한 설명을 동원하고 있다. 그의 심장지역이론에 따른 세계지도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미국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여 이를 단순히 주변부로 분류하는 등 적지 않은 오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많은 비판지정학자들이 지적하듯, 지정학의 힘은 이러한 오류가 있음에도 많은 독자가 그 이론에 수긍하도록 하는 지리적 시각화, 각 사회의 문화에 내재한 지정학적 정서를 이용하는 수사학에 있다(Kearns, 2003; Dodds, 2003).

Flint(2006)는 고전지정학의 특징을 <표 1>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로, 대다수의 지정학 사상가들은 정치적 엘리트였다. 대개 그들은 유력 정치인이거나 최소한 국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분석이 인류역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에서 나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가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원인을 규명했다고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그들의 시각은 조감도(bird eye view)적 시각을 넘어 ‘신의 시각(god’s eye view)’에 비

유되기도 한다(Haraway, 1988). 자연히 이러한 ‘내려다보기’ 중심의 시각에서 보자면, 국가의 흥망성쇠는 단순히 영토의 크기로 치환되기도 했다. 또한 지정학의 주장들은 종종 매우 단순화된 구호로 정리되곤 했는데, 이는 정책결정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또한 기억하기 편리하기 때문이었다. 널리 알려진 매킨더의 명제는 고전지정학의 위와 같은 현실 정치 지향 및 과도한 일반화라는 특징을 한 번에 보여주고 있다.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심장지대를 지배하고  
 심장지대를 지배하는 자는 ‘세계의 섬(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고  
 세계의 섬을 지배하는 자는 세계를 지배한다

### 3) 비판지정학의 기원

비판지정학의 시작에 대해서는 상이한 설명이 있지만, 1992년 *Political Geography*에 수록된 Ó Tuathail and Agnew의 “Geopolitics and discourse: practical geopolitical reasoning in American foreign policy”가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때가 많다.<sup>6)</sup> 또한 비판지리학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두 명의 아일랜드인 지리학자 Geróid Ó Tuathail과 Simon Dalby의 공헌이 지대했다(Dalby and Ó Tuathail, 1996; Ó Tuathail and Dalby, 1998). 이외에도 John Agnew(Agnew, 2005; Ó Tuathail and Agnew, 1992), Kalus Dodds(Dodds, 2001; 2003), Leslie Hepple(Hepple, 1986), Timothy Luke(Luke, 2000), Paul Routledge(Routledge, 2003) 등이 비판지리학의 성립과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Ó Tuathail et al.(2006)에 따르면 키신저 이후 지정학은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분야가 되었지만, 정치지리학은 여전히 국내정치나 선거지리학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

6) 영미권 지리학계의 영역을 벗어나면, 프랑스 지정학자 Yves Lacoste의 *Geography is first and foremost about making war*(1976) 이후의 프랑스 지정학 사조도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프랑스 지정학의 연구성과가 영미권 지리학계에 간헐적으로 소개되고 있다(Ó Tuathail, 1996; Kelly, 2006).

나 1982년 John O'Loughlin과 Peter Taylor가 의기투합하여 만든 *Political Geography Quarterly*가 출간되면서 정치지리학자들의 연구활동은 큰 전기를 맞게 된다. 또한 현실 정치 영역에서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신냉전'이 등장함으로써 국제정치의 이슈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기회가 생겼고 이는 또한 시급한 학문적 요구이기도 했다. 또한 레이건 행정부의 많은 대외정책 이슈들은 지도학의 힘을 빌려 시각화(visualization)된 후 발표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소련은 '사악한 제국'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메르카토르 도법을 이용하여 거대한 붉은 국가로 표현되었다(O Tuathail, 1996). 비단 시각화의 문제만 아니라, 단어의 비유적 사용도 흥미로운 주제가 되었다. 소련의 확장정책과 핵무기문제를 단순히 비난하는 것과 소련을 '사악한 제국(evil empire)'으로 묘사하는 것은 인식론적으로 매우 다른 차원의 일이다. 특히 서구사회의 기저에 깔린 기독교 문화를 고려한다면 이는 선악의 이분법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매우 강하게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서의 지리가 아니라, 지정학적인 의도로 채색된 지리지식이 어떻게 교묘하게 대중연설, 그림, 만화, 영화 등 대중문화에 파고드는가가 비판지리학에서는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이러한 연구주제를 다루고자, 비판지정학은 지정학을 담론적 실천(discursive practice)으로 재규정하고, 텍스트의 해체와 같은 포스트모더니즘 연구방법을 채택했다. 포스트모더니즘 지정학으로서의 비판지정학은 첫째, 지리지식을 권력관계라는 관점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Foucault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지리를 이데올로기나 정치와 무관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담론으로 이해하고, 담론으로서의 지리를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둘러싼 권력관계가 반영된 실체로 바라볼 것을 주문한다(Foucault, 1980). 따라서 담론으로서의 지정학은 국제정치와 관련된 지리가 기록되는 사회문화적 자원과 규범을 연구하는 학문이 된다(O Tuathail and Agnew, 1992). 둘째, 비판지정학은 관찰자와 관찰대상의 이분법적 구분을 거부한다. 주체의 객관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과거 국가 전

략 위주의 고전지정학은 정치와 지리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정치 그 자체가 된다. 또한 지리지식의 생산자 역시 그가 기술하고자 하는 외부의 세계와 구별될 수 없기에 지리지식의 중립성을 가정하지 않는다. 비판지정학의 입장에서 지리(geography)는 단순한 기술의 대상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현상을 기술하는('geo-graphing') 행위가 된다(O Tuathail, 2006). 셋째, 주체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비판지정학에서는 개별 주체들이 담론을 만들어내고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특히 영토나 경계와 같은 특정한 공간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개별 지정학 주체는 담론을 이용하게 되며 이를 위해 가용한 권력을 동원하게 된다(Sharp, 2000).

예를 들어 Dalby(1990)는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안보문제와 지정학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그에 따르면 지정학의 중요성은 고전지정학의 핵심 문제인 세계 전략에 있지 않다. 지정학의 힘은 어떻게 미국인들이 소련이나 여타 다른 미국에 위협이 되는 잠재적인 국가들을 미국과 매우 다른 위험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들이 미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공간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당위를 미국민에게 심어주는 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정학의 중요성은 미국 대외정책의 근간이 되는 봉쇄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봉쇄정책을 통해 '우리(내부인)'와 '그들(타자)'을 구분하는 이데올로기의 전파과정이 된다. 다시 말하면 지정학은 특정한 정치집단이 어떻게 그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하는가, 혹은 어떤 문화적 역사적 토양이 이러한 전략을 유효하게 만드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된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비판지정학은 비판적인 시각에서 지정학의 전통을 살펴보고 동시에 어떻게 지리학적 지식이 특정한 정치집단에 의해 이용되고, 생산되고, 논쟁거리가 되며, 왜곡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된다. O Tuathail과 일단의 지정학자들의 초기 연구 이후 비판지정학은 지정학의 중요 분야로 성장했다.

#### 4) 비판지정학의 주요특징

##### (1) 문화로서의 지정학과 재현(representation)의 지리

Ó Tuathail 과 Dalby(1998)에 따르면 지정학이란 ‘현자(賢者)’의 국가경영(statecraft)을 넘어선 문화적 현상이다. 고전지정학자들이 어떻게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가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라 그들의 주장을 ‘과학’으로 포장했지만, 비판지정학의 입장에서 지정학이란 특정한 발언(statement)이나 재현(representation)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문화적 현상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을 둘러싼 폭력사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서울 뒤덮은 오성홍기”라는 제하의 기사에는 한 시민 인터뷰가 삽입되어 있다. “6·25 때도 이렇게 많은 붉은 깃발이 서울 도심을 덮은 적은 없었다”(《조선일보》, 2008년 4월 28일자). 이 한 문장에는 한국지정학의 많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 인용구는 단지 서울에 다수의 중국 학생과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는 1950년 서울이 북한군에 의해 점령되었던 역사적 상처와 21세기 서울에 유입된 중국 인구를 대비함으로써 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아직도 명목적으로나마 사회주의 국가이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거의 유일한 후원자로 남아있다. 또한 한반도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를 고려한다면 중국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는 ‘잠재적인 적대국가’일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와 공포심은 언론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정치적 사건이 큰 반향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는 역사·문화적 배경과 이 사건이 확대 재생산되는 사회구조가 자리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비판지정학은 현실주의 정치학의 기본 가정인 주체의 합리성을 거부한다. 또한 지식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인식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Johnston and Sidaway, 2004; Dalby, 1993). 비판지정학자에게 지정학이란 더 이상 단순한 지리와 정치의 상관

관계를 설명하는 학문이 아니다. Ó Tuathail and Agnew(1992)는 지정학을 국가 통치에 있어서 담론의 실천(practice)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연구에서 비판지정학은 실천보다는 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Ó Tuathail and Agnew는 “전쟁은 실천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실천은 담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정치인들은 담론을 이용해 행동하고, 간단한 지리적 지식을 이용하여 대외정책을 설명하며, 이미 통용되는 지리적 사고방식(geographically-infused reasoning)을 통해 전쟁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낸다”고 적고 있다(Ó Tuathail and Agnew, 1992: 191). 다시 말하면 지정학이란 국제정치를 공간화하는 담론이며, 특정한 장소, 사람, 사건들을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재현해내는 담론인 것이다. 따라서 매킨더, 하우스호퍼와 같은 고전지정학자들이나 미국 대외정책 결정자들의 주장은 특정한 시점에서 그들이 속한 국가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반영에 불과하게 된다. 또한 초기 고전지정학자들이 취했던 ‘조감도적 시각’, ‘신(神)의 시각’, ‘현실에 초연함’과 같은 태도는 그들의 주장이 과학에 기반하고 있음을 주장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Haraway, 1988). 따라서 비판지정학은 지정학이 중립적이며 지구적 공간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한다(Ó Tuathail and Dalby, 1998). 예를 들어 지리지식의 객관성에 대해 Nicholas Spykman은 아래와 같이 확신에 찬 주장을 했다.

“지리는 국가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지리는 가장 변치 않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취임하면 퇴임하게 되고, 심지어 독재자들도 죽지만, 산맥은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Spykman, 1942, quoted in Dodds, 2003: 206).

이에 대해 Dodds(2003)는 산맥과 대양이 자연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며, 사람들이 ‘전략적인’ 것으로 명명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전지정학의 지리결정론적 주장을 반박했다. 즉 세계정치지도(world political

map)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판지정학의 시각에서는 세계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현되고(represented) 해석되는 대상이 된다. 더욱이 기존의 지리적 재현(geographical representation)은 유럽 중심의 세계관에 기반을 둔 것으로 언제나 유럽의 정치적 문화적 목적에 의해 세계를 구분했다는 것이 비판지정학의 시각이다. 따라서 비판지정학은 기존의 문명/야만, 선진국/개발도상국의 이분법적 세계관을 부정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세계관은 근대 지정학적 상상력(modern geopolitical imagination)의 유산으로 이해된다(Agnew, 2005).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현실 세계는 거대 이론에 의한 경계 짓기(demarcation)나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Edward Said는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 이론을 ‘무지의 충돌(the clash of ignorance)’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가 말한 바로는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이론은 세계를 몇 개의 문화지역으로 구분하는 과도한 단순화와 서구 중심의 세계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세계를 거대한 체스판으로 이해하는 고전지정학의 사고방식을 답습하는 것이다(Said, 2001). 실제로 헌팅턴 자신도 문화지역(cultural area)을 구분하는데 혼란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논문에서 제시된 문화지역의 개수가 그의 논문 안에서도 일관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sup>7)</sup> 고전지정학이 이러한 과도한 단순화의 오류에 빠져 있음이 비판지정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왔다.

비슷한 맥락으로 Dalby(1996)는 Robert Kaplan's의 환경 파괴와 인종문제로 야기되는 유명한 “엄습하는 대혼란(coming anarchy)” 시나리오를 비판하고 있다. Kaplan에 따르면, 과도한 인구 증가는 몇몇 개발도상국에 집중되며, 이는 환경 파괴와 식량과 기타 자연자원의 부족을 야기하게 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재앙은 대량의 인구이동을 동반하

7) 좀 더 살펴보면, 헌팅턴은 중국·한국·베트남을 유교문화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본은 독립된 문화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방법은 과학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고려나 서구 중심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며, 이로써 전 세계는 대혼란에 빠져들게 됨을 경고하고 있다(Kaplan, 1994). 일견 타당한 Kaplan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소위 선진국은 국경을 폐쇄하고 대규모의 개발도상국 인구가 그들의 영토로 밀려들기 전에 약간의 식량 원조와 같은 인도적인 조치를 해야 함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Dalby는 이러한 Kaplan의 주장이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개발도상국을 위협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오류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Dalby는 선진국(우리)과 개발도상국(그들)이 무역, 직접 투자, 상품 연계(commodity chain)를 통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들’의 가난이 ‘우리’의 경제 활동과 무관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Dalby에게 있어서 Kaplan의 주장은 단순히 지구적 환경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선진국의 책임보다는 개발도상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희생자 비난하기(blaming the victims)’의 오류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분석의 단위: 다층위적 공간과 다수의 지정학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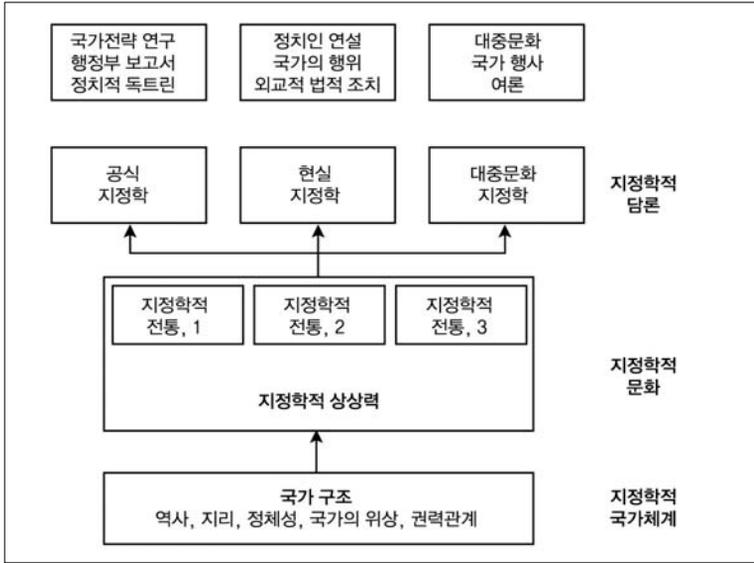
무엇보다도 비판지정학에서 논의하고 있는 담론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지정학의 분석단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고전지정학에서의 분석단위는 국가로 한정되었다. 각 국가는 정치적, 영토적 이해관계를 가지며 이는 국제관계의 기반이 된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Ó Tuathail 과 Dalby(1998)는 John Agnew(1994)의 용어를 빌어 지정학은 ‘영토의 함정(territorial trap)’이라는 학문적 미신을 타파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Agnew(2005)에 따르면 정치학과 같은 근대 사회과학은 국가 중심의 시각, 소위 영토의 함정에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영토의 함정에 의해 권력의 지리학적 이해는 몇 가지 가정에 기반을 두게 된다. 첫째, 국가는 자국의 영토 안에서 배타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둘째,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는 구분되며 각각은 서로 다른 논리구조를 가지게 된다. 셋째, 각각의 사회는 영토적 국민국가에 의해서

규정된다. 따라서 한국 사회, 미국 사회 등 사회는 국가 때문에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판지정학에서는 국내/국제정치, 영토의 물리적 구분은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sup>8)</sup> 따라서 획정된 물리적 국경보다는 오히려 ‘외부와 내부’,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과정이 중요해진다. 이로 말미암아 공동체, 지역, 국가 등 다층위의 공간이 분석의 단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라는 정의는 법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누구를 한국인으로 보느냐는 내부/외부의 구분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일종의 포섭/배제/구분의 규칙이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적용되고 있다. 재외 한국인을 통칭하는 용어인 ‘교포’는 재미교포, 재일교포 등에 사용되고 조선족, 고려인 등 다른 특수한 용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이는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는 일이 절대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Sparke, 2005).

이러한 공간 인식은 비판지정학에서는 지정학의 주체 즉 누가 지정학을 ‘하는가’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국가를 분석단위로 하는 고전지정학에서 지정학의 주체 문제는 매우 분명했었다. 국가 혹은 매킨더, 하우스호퍼와 같은 지정학 정책 결정의 대리자들이 지정학의 주체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론구조와 문화적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비판지정학에서 주체의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판지정학은 지정학이 국가와 세계의 움직임을 꿰뚫는 현자의 학문이라는 믿음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즉 지정학은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이나 이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 주체가 외부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판지정학은 단순히 지정학의 사상가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층위의 지정학적 구조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판지정학자들은 <그림 1>과 같은 지정학적 개념 틀을 제시하고 있다(O Tuathail

8) 비단 비판지정학만이 아니라, 정치지리학계에서 국민국가와 영토적 구획을 넘어선 다양한 공간단위에 대한 분석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Brenner, 1999).

<그림 1> 지정학: 비판지정학의 개념도



자료: Ó Tuathail et al. 2006. *The geopolitical reader*. New York: Routledge. p. 8.

and Dalby, 1998; Ó Tuathail et al., 2006).

<그림 1>에서 국가 구조는 지정학적 전통이나 문화를 이루는 근간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위치나 유럽 대륙과의 관계 혹은 동아시아의 반도인 한국의 위치는 지정학적 문화의 배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는 고전지정학에서 주장하듯 결정론적인 설명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 성립의 역사적 배경, 국가 정치체도의 특징, 국가 정체성에 대한 담론,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전통, 국가 내부의 권력 네트워크 등 다른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Ó Tuathail, 2006: 7). 여기서 지정학적 문화는 지정학적 코드(geopolitical code)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지정학적 코드는 사회 내의 여러 집단이 내부인(우리)/외부인(타자), 친구/적대세력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기능 한다(Dijkink, 1996). 예를 들어 한국의 지정학적 코드는 가장 중요하

게는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특정한 국가가 북한을 지원한다면 그 국가는 한국에는 적대세력으로 분류될 것이고 이는 국가단위로서 한국의 지정학적 코드에서 북한이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전술한 “한국인이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내부인과 외부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요구한다. 수십만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농촌지역에 만연한 ‘신부 수입’ 현상으로 일어난 다문화사회 논란은 한국인 혹은 한국민에 대한 정의가 쉽지만은 않은 문제이며 동시에 시급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민족적 구성에서 매우 동질적이었기 때문에 외부/내부인의 구분에 더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위 ‘혼혈’에 대한 군 복무 제외규정은 이러한 배경에 기반을 둔 한국의 지정학적 문화가 국가안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재언하면 한국의 지정학적 문화는 단순히 한국의 지리적 위치로만 환원될 수는 없는 것이다. 비판지정학적 시각에서는 역사, 국제관계, 문화, 세계관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지정학적 문화는 특정한 사상이나 국제관계에 대한 견해에 의해 구성되기도 한다(O Tuathail, 2006). 예를 들어 반공주의, 흔히 ‘혈맹’으로 표현되는 한·미 동맹 역시 현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코드를 구성하는 요소로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담론체계로서의 지정학에 대해 비판지정학은 다음과 같은 3개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공식 지정학(formal geopolitics), 현실 지정학(practical geopolitics), 대중문화 지정학(popular geopolitics)이 그것이다. 현실 지정학은 정부, 군부, 정부관료 등에 의한 공식적 언급이나 논리적 정당화를 지칭한다. 이에겐 정부의 공식 논평, 국가수반의 연설, 언론 보도, 언론 보도를 전제로 한 정부관료의 인터뷰 등이 포함된다. 반면 공식지정학은 대학 등의 학술기관이나 싱크탱크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연구물 등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국가의 지정학적 논리 배경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테러와의 전쟁으로 대표되고 알려진, 부시 행정부의 독트린은 공식 지정학의 영역이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국무장관의 언급이나,

이라크 전쟁이 성공적이라는 군부의 정당화, 이라크의 치안상황이 양호해지고 있다는 정부관료의 발언 등은 모두 현실 지정학의 영역에 속한다. Ó Tuathail은 현실 지정학적 차원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그의 연설에서 어떻게 매킨더의 지정학적 주장을 비유적 방법으로 거의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Ó Tuathail, 1992). 매킨더의 지정학적 언어를 차용함으로써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Reagan, 1988: Ó Tuathail, 1992에서 재인용).

“우리 전략의 첫 번째 역사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단순명료하며 무척이나 상식적입니다. 이 전략은 아래와 같은 확신에서 기인합니다. 만약 적대적인 국가나 국가들이 세계의 심장 지역이라 불리는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게 된다면, 미국의 가장 기본적인 국가안보는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막고자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었습니다. 1945년 이후 우리는 소련이 그들의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하여 인접국가인 서유럽, 아시아, 중동을 지배하고, 이어 세계적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우리에게 불리한 형태로 재편하는 것을 막으려고 싸웠습니다”(Reagan, 1988: 2; Ó Tuathail, 1992에서 재인용, 주요 단어를 강조했음).

마지막으로 대중문화의 지정학은 신문, 방송, 잡지, 영화 등에서 나타나는 지리적 재현(geographical representation)에서 찾아볼 수 있다(Dodds, 2003). 쉬운 예로 중동이나 이슬람 문화가 어떻게 할리우드 영화에서 표현(지리적 재현)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McAlister (2001)는 할리우드 영화가 서구 문화를 세련되고, 우월한 것으로 표현하고, 중동의 문화를 야만적이고 잔인한 것으로 표현해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문화전략은 영화에만 그치지 않는다. Dittmer(2005)는 미국의 유명한 아동용 만화인 *Captain America*<sup>9)</sup>가 미국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개념화하며 또한 이를 인격화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

다. 다시 말하면 비판지정학은 이러한 문화적 암시(implication)가 직접적인 정치적 발언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등장인물들의 억양, 의상, 행동은 그릇된 지정학적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며 이는 이후의 지정학적 상상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대외정책이나 국제정치에 대한 공식적인 기술을 연구하는 방법을 넘어서 매스미디어를 통한 만들어진 지정학적 토양을 미시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도 지정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임을 주장하고 있다. Sharp(2000)의 경우 *Reader's digest*와 같은 대중잡지가 그 발행 부수나 고정 독자를 고려해볼 때 무시할 수 없는 지정학의 주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Sharp에 따르면 냉전시기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타난 미국의 중대한 위협은 인간 중심적이고 번영하는 미국 사회의 대척점인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소련 사회로 표현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미국의 타국에 대한 개입은 로마의 침략과는 다른 ‘법치(rule of law)’의 확산과정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지정학적 수사가 헤게모니 국가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듯이 그 반대의 경우인 반지정학(Anti-geopolitics)도 가능하다. Falah et al.(2006)은 이라크 전쟁이 어떻게 아랍 세계에서 해석되고 받아들여졌는지를 아랍 세계의 신문 만평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문화 지정학의 연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기존의 문화 비평과의 차이점을 상실한 측면도 있다. 실제로 대중문화 지정학의 사례로 빈번히 인용되는 Said의 Orientalism 논의나 McAlister(2001) 등 할리우드 영화 연구는 비판 지정학의 연구성과라기보다는 문학, 문화비평의 연구업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9) Joe Simon과 Jack Kirby가 그리는 만화 시리즈로 1941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2억 부가 넘게 팔렸다. 특수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Steve Rogers라는 주인공이 미국에 위협이 되는 적대세력을 물리치는 애국주의적 내용이다. 이 만화를 통해 많은 미국 어린이들이 누가 미국의 적인가, 미국은 어떠한 나라인가, 미국의 가치관은 무엇인가를 체득하게 되었다.

### (3) 현실주의 정치학과 고전지정학에 대한 비판

『지정학 선집(選集)』(O'Tuathail et al., 2006)에서 Ó Tuathail은 비판지정학이 일상생활과 학계에 만연한 정치적 현실주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고전지정학적 논리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학문임을 강조하고 있다. 담론으로서의 지정학과 현실주의 정치학의 극복 사이의 논리적 관계는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의 주장을 좀 더 따라가 보면 그의 논리는 좀 더 분명해진다. 정치학의 현실주의 캠프에 따르면 국가는 태생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권력을 위해 투쟁하며 때로는 전쟁을 하기도 하는 주체로 여겨지고 있다. 비판지정학은 이러한 현실주의 정치학의 가정을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담론체계이거나 미신으로 규정한다. 사실상 분쟁이나 전쟁보다 더 많은 협력과 평화적 관계가 국가 간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Ó Tuathail은 현실주의 정치학이라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주의가 담론이 아닌 ‘실제적인 것’으로 믿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Ó Tuathail은 지리지식 이면에 있는 권력구조와 지리 지식의 ‘유통구조’ 때문에 지리지식 자체가 중립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Ó Tuathail은 미국의 지정학 담론을 지배하는 ‘철의 삼각형(iron triangle)’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철의 삼각형은 방위산업체, 국회의원, 국방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서로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강화시켜주며 때때로 많은 싱크탱크 연구원들이 이 논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매스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모두 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단체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무관하지 않다(Ó Tuathail, 2006).

비판지정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고전지정학에 대한 비판을 통해 비판지정학은 과거 제국주의 지정학의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Ó Tuathail은 이러한 학문적 지향, 즉 과거 지정학을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비판지정학의 주요 주제임을 분명히 밝혔다(Ó Tuathail, 1994). 또한 Agnew는 그의 책 *geopolitics*에서, 지리학/지정학의 역사를 ‘근대지정학적

상상력(modern geopolitical imagination)’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Agnew에 따르면 지정학적 전통은 대략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세 단계는 문명 중심 지정학(civilized geopolitics), 환경결정론적 지정학(naturalized geopolitics), 이데올로기 지정학(ideological geopolitics)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각각의 지정학은 근대 지정학적 상상력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문명 중심 지정학은 유럽의 시각으로 세계를 문명/야만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결정론적 지정학은 칼 하우스호퍼의 주장에서 보듯, 단선적 역사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영토 확장을 국가의 최고가치로 여기며, 이는 국가가 위치하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여 제국주의를 유기체인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옹호하는 주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주장의 기반에는 국가의 지리적 위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됨은 전술한 바 있다. 또한 이데올로기 지정학은 과거 냉전시대를 지배하던 지정학적 사고체계가 된다. Ó Tuathail(2006)은 헬포드 매킨더, 시어도어 루스벨트, 칼 하우스호퍼, 아돌프 히틀러, 아이제이어 보우먼과 같은 이 시기의 지정학자들이 영토적 야심을 어떻게 공간적인 표현과, 지정학적 수사를 통해 국가의 주요 전략으로 발전시켰는지 보여주고 있다. Ó Tuathail은 과거 지정학자들의 저작들과 연설문을 통해 Agnew가 주장한 근대 지정학적 상상력이 어떠한 형태로 각 지정학자에게 나타나는 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매킨더, 하우스호퍼, 보우먼, 심지어 히틀러조차도 그들의 지식과 주장이 과학의 세례를 받았으며 인류 역사를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Ó Tuathail(1992)은 매킨더(Sir Halford Mackinder)의 지정학 이론을 매킨더의 개인적인 배경과 대영제국의 제국의 야망이라는 두 축으로 살펴보고 있다. 영국인인 매킨더는 교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대영제국의 쇠락을 막아보고자 했던 정치인이기도 했다는 점은 그의 이론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매킨더의 유명한 지정학 이론인 심장부이론(heartland theory)은 대영제국과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툴 것으로 예상되

는 독일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고려에서 나온 주장으로, 과학으로서의 지정학과는 거리가 멀다. 이와 비슷한 연구는 많은데, Ó Tuathail, Dalby and Routledge는 그들이 공편한 *Geopolitics Reader*(2006)의 한 장(章)에서 매킨더,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하우스호퍼(Karl Haushofer), 히틀러(Adolf Hitler), 보우먼(Isaiah Bowman) 등의 지정학이론을 비판지정학적 시각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한 적지 않은 학자들이 1945년 이전의 지정학 사상가와 정치인의 주장에 대해 비판지정학적 고찰을 시도했다(Heppele, 1986; Bassin, 1987; Heske, 1987; Paterson, 1987; Atkinson and Dodds, 2000; Smith, 2003).

## 5) 비판지정학에 대한 비판

### (1) 페미니즘 지정학의 등장

비판지정학의 주 비판대상이었던 고전지정학자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비판지정학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페미니스트 학계에서 일어났다. 많은 페미니즘 지정학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비판지정학의 논의와 대비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비판지정학이 여전히 페미니즘적 시각을 결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Dowler and Sharp, 2001; Gilmartin and Kofman, 2004). 그러나 큰 맥락에서 페미니즘 지정학은 비판지정학의 하위 갈래로 바라보는 것도 타당하다. 예를 들어 Gilmartin and Kofman(2004)은 그들의 저서 *Mapping Women, Making Politics*에서 “Critically Feminist Geopolitics”와 같이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를 비판지정학에 추가함으로써 그들의 학문적 지향이 비판지정학을 계승·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Gilmartin and Kofman은 제국주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지정학을 살펴봄으로써 젠더 문제와 제국주의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 그들은 제국주의 담론에서 탐험은 남성성의 상징으로, 반면 탐험과 정복의 대상인 세계는 여성성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비판지정학도 과거의 고전지정학과 마찬가지로 남성 중심적 사

고에 기반을 둔 분석과 공간적 재현에 머물러 있음을 비판했다(Gilmartin and Kofman, 2004: 123).

비판지정학이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은 지리학의 ‘문화로의 전환(cultural turn)’의 산물이라면, 페미니즘 지정학은 ‘젠더로의 전환’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Dalby(1994)는 비판지정학이 젠더 문제와 그 중요성을 간과해왔다고 주장했다. Staeheli and Kofman(2004)에 따르면 비판지정학에서 젠더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실망스러운 부분이었다고 고백한다. 왜냐하면 국가 중심 기술에서 벗어난 비판지정학의 이론적, 방법론적 지향에서 비판지정학은 젠더 문제를 다루기 적합한 학문분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더 나아가 Hyndman(2007)은 페미니즘 지정학이 단지 젠더 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당위에서 시작된 학문분야가 아니며, 지정학이 왜 젠더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페미니즘 지정학의 학문적 공헌이라는 측면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Hyndman(2007)에 따르면, 페미니즘 지정학의 첫 번째 관심은 지정학의 실행자(performer)로서의 여성(정치인, 지정학자, 지정학 사상가)과 지정학의 대상(object)으로서의 여성(연구주체로서의 인간)의 차이점에 있다. 페미니즘 지정학의 시각에서는 과거의 제국주의 지정학과 비판지정학 공히 남성 중심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한다. Gilmartin and Kofman (2004)은 여성이 제국주의적 팽창에서 철저히 제외되었으며, 이로 인해 제국주의는 남성성의 발로로 여겨졌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는 제국주의의 잔인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일례로 여성은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탐험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되었다(115). 그러나 제국주의 지정학에서의 여성의 배제는 흥미 있는 주제임은 분명하나 새로운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시 여성의 사회 참여 배제는 전반적인 현상이었으며 지정학 분야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반대로 제국주의 팽창에 여성이 개입되었어야 하느냐는 윤리적인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반면 지정학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에 관한 연구는 좀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성의 국제정치

영역에서의 지위는 의사결정자라기보다는 이주노동자, 이민자, 혹은 보호받아야 하는 희생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Dowler and Sharp, 2001: 168). 비판지정학은 일상생활과 대중문화 속에 있는 지정학을 연구한다는 모토를 내세웠음에도 여전히 대통령, 정치인 등 공식적 정치영역에 대한 분석에 집중했기 때문에 지정학적 사건에서 여성이 겪어야 하는 실제적 진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비판지정학이 여전히 남성 중심적·서구 중심적 시각으로 지정학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 Dowler와 Sharp는 아래와 같이 비판하고 있다.

비판지정학의 용어들은 보편타당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실상 비판지정학의 용어들은 백인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서구의 사고체계에 다름 아니다(Dowler and Sharp, 2001: 167).

페미니즘 지정학자들은 비판지정학이 서구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비판지정학의 논의가 영어권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Dodds and Atkinson, 2000).

다른 중요한 페미니즘 지정학의 특징은 스케일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지정학이 글로벌차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는 사고는 비판지정학에 의해 비판받았지만, 지정학이 여전히 안보영역 위주의 국제정치(high politics)를 다루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대해 페미니즘 지정학자들은 인간의 몸을 지정학의 현장 혹은 지정학 자체로 포함하지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인간의 몸을 국가, 지역과 같은 분석의 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서 전통적인 성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즉 지정학적 현장에서는 남성·여성 모두 무고한 피해자이며 힘없는 개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페미니즘 지정학자들은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접근법 역시 일상생활에서의 현실 정치를 연구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Spark(2005)는 정치라는 것이 계급 분석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고 주장한다. 개인, 성, 문화, 육체 모두가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Stacheli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페미니즘의 주장을 강조하면서 정체성의 정치를 포함하는 페미니즘 지리학이 정치지리학에서 분리될 수 없는 영역임을 주장하고 있다(Stacheli, 2001: 183). 이러한 인간의 몸에 대한 강조는 지정학에 윤리를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간의 몸을 지정학의 연구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페미니즘 지정학은 더 나아가 반지정학(anti-geopolitics)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쳤다. 만약 지정학이 개개인이나 국제정치의 희생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국가의 거대 전략이라는 담론으로 포장된 지정학의 잔인성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Dowler와 Sharp는 반지정학의 시각으로 성립된 정치지리학은 윤리와 분노를 강조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반지정학적 시각은 결코 중립을 취하거나 무관심 혹은 풍자에 그치지 않는다. 반지정학은 불의에 대해, 혹은 탐험과 지배라는 지정학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다(Dowler and Sharp, 2001: 168). 즉 지정학적 사건들은 ‘나’, ‘우리’ 혹은 ‘내가 이는 사람들’에 관한 사건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헤게모니 국가의 세계 전략은 단순히 추상적인 거대 계획이나 국가 간의 수사학(修辭學)의 전쟁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강제 이주, 난민, 추방,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페미니즘 지정학자들은 정치를 ‘육체에 투영(embodying)’함으로써 지정학과 ‘주체’의 간격을 좁히고 이로써 지정학에 도덕과 윤리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이 인간의 존엄이라는 보편타당한 가치에만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성과 무력한 희생자들’의 지정학적 비극은 집합적 감정이나 민족주의와 결합하면 국가적 영웅보다도 더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9·11테러 당시 미망인들의 비극은 이후 미국의 군사적 역할을 강조하는 전략을 위해 효과적으로 이용되기도 했다(Dowler, 2002; Flint, 2006: 121).

인간의 몸을 정치영역으로 포함하는 페미니즘 지정학의 시각은 기존의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문제까지 발전하게 된다. 페미니즘 지정학

자들은 공간을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으로 나누는 이분법에 반대하고 있다(Hyndman, 2001). 페미니즘의 시각에서는 가부장적 권력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한다(Sharp, 2003: 59). 따라서 사적 영역이 비정치적이라는 주장은 젠더 지정학에서는 부정된다. 페미니즘 지정학자들은 세계가 간단히 이해되는 실체가 아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권력이 생성되고 구조화되는 복잡한 권력망과 그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제도화된 정치나 선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좁은 의미의 정치를 거부한다(Secor, 2001). 페미니즘 지정학에서 인간의 몸은 공적인 실체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강간(強姦)에 있어서 개인의 몸은 더 이상 사적인 영역에 머무를 수는 없다. 여기서 인간의 몸은 가장 작은 지정학적 공간이 된다. 앞의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을 둘러싼 폭력사태에서 한국 경찰에 대한 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몸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한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이런 의미에서 한국 경찰의 몸은 한국의 영토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사적인 공간을 공적인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페미니즘 지정학자들은 지정학 연구의 대상을 엘리트 정치인의 정치적 담론으로부터 한계집단(marginal groups)을 만들어내는 구조와 과정으로 바꾸고자 했으며 이러한 과정이 정치체계의 분석에서 왜 필요한지를 밝혀내고자 했다(Stachel and Kofman, 2004). 예를 들어 Secor(2001)의 분석은 지정학에서 수동적인 주체였던 이슬람권 여성의 정치적 행동의 이면에는 여성 중심의 채널과 네트워크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채널은 매우 개인적인 형태를 띠며, 동시에 여성에게만 개방되어 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여성의 정치적 견해는 개별적으로 고립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네트워크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2) 비판지리학계의 비판

전술한 페미니즘 지정학의 비판과 유사하게 Thrift(2000)는 비판지정학이 지나치게 담론구조 분석 특히 국제정치를 둘러싼 언어의 사용에 대한

분석에 치우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담론의 분석이 정작 개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소소하지만 중요한 일들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사물, 사람, 단어의 사용 등 작은 주제에 초점을 맞춤으로 지정학이 현실에 투영되는 방법이 분석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Müller(2008)는 담론을 지정학 주체의 실천(practice)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언어와 실천은 상호 강화되거나 영향을 주면서 발전하는 것으로 텍스트 분석과 민족지(ethnography)적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최병두(2003) 역시 포스트모던 사회이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비판지정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미시적 지정학은 정치경제적 맥락을 배경으로 하는 세계적 규모의 지정학적 움직임과 생활의 정치에서 일어나는 미시적 영역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연구주제에서 주한미군이 일으킨 범죄와 환경문제에서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의 세계 전략과 그 전략이 실제로 수행되는 지역사회가 동시에 고려되고 있다.

또한 Dowler and Sharp(2001)는 비판지정학이 정치적 담론의 해체에는 성공했지만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비판지정학이 지정학의 수사 이면의 정치적 목적을 들추어내고,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지정학적 미신을 비판했지만, 여전히 이는 고전지정학에 대한 ‘비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비판지정학이 고전지정학의 대척점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는 대안적 지정학의 성립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Routledge(2003)의 반지정학(Anti-geopolitics) 개념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반지정학 운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급하는지, 과거의 사회운동이나 반체제운동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지 않다. Routledge는 반지정학은 “국가의 지정학적 원동력인 물질적 하부구조(경제·군사)에 대항하는 것이며 동시에 정치·경제엘리트가 제시하는 세계관에 대항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존의 사회운동에 어떠한 역동성을 더해줄 수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이러한 대안으로서의 비판지정학의 단점은 비판지리학 혹은 급진주의 지리학의 비판으로 더욱 명확해진다(Mercille, 2008). 급진주의 지정학은 마르크스의 연구를 지리학적으로 해석해낸 데이비드 하비의 선구적인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Harvey, 1982 and 2003). 급진주의 지정학은 자본 축적의 논리와 자본의 공간적 확장(Harvey, 2006) 그리고 국가의 지정학적 행위와 영토를 통제하는 국가의 전략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지정학적 재현(geopolitical representations)과 엘리트 지정학자들에게 집중된 비판지정학의 연구 흐름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Neil Smith(2000) 역시 비판지정학이 포스트모더니즘 연구방법론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 요인의 분석에 소홀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판지정학자들이 백인 남성 위주의 고전지정학을 비판하면서, 왜 고전지정학자들의 계급적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인종이나 젠더의 문제와 동시에 계급적 관점을 견지해야 함을 주장했다. Choi(2003) 역시 미국의 제국주의적 안보전략이 정치적인 고려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으며, 자본주의적 논리를 포함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지정학 연구에서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급진주의 지정학의 목표는 Flint and Taylor(2007)가 보여준 자본주의 세계체제하에서 지정학적 행위를 이해하는 세계체제론적 접근과 유사하며, 동시에 세계체제론적 접근이 흔히 비판받는 결정론적 시각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것으로 보인다.

Dodds(2001)가 주장하듯 비판지정학이 지정학과 정치지리학의 영역을 확장시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다루어야 할 분야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만약 지정학이 문화, 사회, 하위문화 그룹에 깊이 내재해 있는 것이라면 각 사회, 국가, 하위문화 그룹, 사회적 소수자들 사이에는 서로 다른 지정학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구 문화 이외의 지정

학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비판지정학이 서구 학계 특히 영미권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어왔기 때문에 지정학의 해석에서 서구 중심주의의 오류가 상존할 가능성이 있다. Sidaway(2008)은 지정학과 정치지리학이 얼마나 서구, 더 좁게는 영미권 학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 보여준다. 특히 하나의 정치적 과정이 한 장소에서 일어나면 그 과정은 다른 장소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단정하는 근대 사회과학의 오류를 정치지리학자들도 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치지리학에서 지리는 그 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의 측면에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현상이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도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Sidaway는 번역의 문제에 있어, 정치지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사회마다 미묘한 의미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어는 정치지리학에서 여전히 큰 장벽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Sidaway et al.(2004)은 정치지리학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용어인 국가(state), 영토(territory), 경계(boundary)라는 단어가 각각의 문화에서 서로 다른 의미와 용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단 언어의 문제를 넘어서 비판 지정학이 담론의 분석에 치중한 나머지 일상생활의 영역의 지정학적 측면을 간과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지정학적 담론과 실천이 이루어지는 개별 국가, 지역에서의 수행되는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서구 중심주의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일례로 Narangoa(2004)는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 지정학자들이 만주, 내몽골, 한반도가 왜 일본제국의 일부이며 동시에 일본제국의 생명선임을 대중에게 세뇌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지정학적 담론과 수사학을 살펴보고 있다. 역으로 이러한 제국주의 지정학의 피해자 처지에서 지정학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한 이후의 지정학적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결론

이 논문에서 우리는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영미권 학계에서 일어난 지정학의 재구성과정을 비판지정학에 초점을 맞추어 간략히 소개하고자 했다. 지정학은 정의하기 어려운 학문 영역이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사장(死藏)되어야만 했던 학문 영역이기도 했다. 그러나 비판지정학을 통해 지정학은 과거의 오명에서 벗어나 공간을 둘러싼 국가나 집단들의 갈등과 투쟁 혹은 협력을 설명하는 유용한 접근방법이 되었다. 또한 과거의 국가 중심적인 기술에서 벗어나 개인, 공동체, 지역 등 다양한 스케일의 지정학 연구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담론구조와 언어의 사용에 치중한 연구방법론이나, 일상생활의 지정학적 요소에 대한 고찰 미흡, 기존의 비판적 사회과학으로서의 지리학의 연구성과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노출하고 있다. 또한 지정학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고 문화로서의 지정학을 강조한 나머지 기존의 문화비평이나 문학의 영역과 차별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좀 더 유연한 연구방법론의 적용, 연구주제의 다양화, 더욱 중요하게는 연구지역의 다변화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비판지정학은 한국학계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는 비판지정학은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시대의 지정학에 대한 비판적인 개념 틀로 이용될 수 있다. Dodds(2001)은 비판지정학의 성립은 냉전의 붕괴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적고 있다. 냉전 이후 정치지리학자들은 지정학의 과거를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자유롭게 살펴볼 여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은 여전히 남북분단이라는 냉전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구 비판지정학이 과거 냉전시대의 지정학을 비판했던 경험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냉전구조 속에서 냉전시대의 지정학을 극복해야 하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를 비판하는 비판지정학을 넘어서 현재를 비판하는 작업이 된다. 이는 대안으로서의 비판지정학의

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비판지정학은 대안이 없는 분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한국에서 냉전적 지정학 사고와 문화는 현재진행형이며 만약 그것이 극복되어야 한다면 어떤 저항의 지점을 비판지정학이 제시해줄 수 있는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일 것이다.

둘째로 우리의 외부 세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한국 지정학에 대한 연구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일 것이다. Flint가 지적한 바와 같이 넓은 의미에서 지정학은 세계를 보는 시각(way of seeing the world)이다(Flint, 2006: 13). 현재 한국의 지정학 코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의 지정학 코드’의 답습, ‘반도의 숙명’이라는 비관적 사고, ‘침략에 대한 상존하는 두려움’, ‘강대국에 둘러싸인 운 없는 작은 국가’ 등의 많은 부정적인 지정학적 코드들이 ‘강소국 담론’ ‘동북아의 조정자’ ‘동북아시아의 중심’과 같은 긍정적 담론과 공존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지정학적 담론들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며 어떤 정치적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비판지정학이 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Abstract

The Rediscovery of Geopolitics and Critical Reconstruction:  
Critical Geopolitics

Chi, Sang-Hyun, Colin Flint

This paper investigates critical geopolitics, one of the most prominent approaches in geopolitics since the 1980s. A group of political geographers, most prominently Gearóid Ó Tuathail, were influenced by postmodernism and reconstructed geopolitics with a critical perspective by problematiz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so called 'classical geopolitics'. They defined geopolitics as a cultural phenomenon and investigated how diverse geopolitical agents strategically used geopolitical representations at multiple scales of space beyond a state-centric description of geopolitics. Critical geopolitical scholars have exposed the assumptions and political intentions of classical geopolitics and foreign policy by deconstructing discourses. Critical geopolitics is evaluated as a new research paradigm for geopolitics to overcome its tainted historical ties to imperialism. However, critical geopolitics has been challenged by feminist perspectives that argue it failed to overcome a patriarchal and western-centric world view and that critical geography scholars ignore the politics of everyday life and economic factors. Critical geopolitics has evolved by absorbing these critics. The paper concludes by suggesting that critical geopolitics may be a useful perspective to explore Korean geopolitics.

Keywords: geopolitics, critical geopolitics, discourse, classical geopolitics, feminist geopolitics

## 참고문헌

- 김광채. 1977. 「Karl Haushofer의 지정학 사상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제3호, 193~204.
- 김명섭·최정호. 2008.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의 원인에 대한 재고찰」. 《세계지역 연구논총》, 제26호, 145~167.
- 남상수. 2004.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한반도 인식의 지정학적 기원과 중국」. 《세계정치》, 제25호, 174~207.
- 이영형·김승준. 2007. 「유라시아 동부지역 Pivot area의 성격과 북핵 6자회담에 참가하는 주변4강의 개입전략에 대한 지정학적 해석」. 《Oughtopia》, 제22호, 203~230.
- 이영형. 2004. 「시베리아 공간의 지정학적 의미와 러시아: 지정학적 요소/분석단위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0호 4권, 137~168.
- 이종철. 1997. 「동북아 지역협력을 위한 경제지정학(geopolitical economy)적 접근」. 《지리학논총》, 제29호, 25~39.
- 임덕순. 1999. 『지정학』. 법문사
- 《조선일보》. “서울 뒤덮은 오성홍기”. Chosun.com, 2008년 4월 28일자.
- \_\_\_\_\_. “핀란드의 운명, 한국의 운명”. Chosun.com, 2008년 5월 1일자.
- 최병두. 2003. 「주한미군의 미시적 지정학-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사회의 범죄 및 환경 문제의 발생과 해결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9호 3권, 297~313.
- \_\_\_\_\_. 2006. 「변화하는 동아시아 에너지 흐름의 정치경제지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2호 4권, 475~495.
- Agnew, J. 1994. “The territorial trap: the geographical assump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1, 53~80.
- Agnew, J and Corbridge, S. 1995. *Mastering space*. New York: Routledge.
- Agnew, J. 2005. *Geopolitics: Re-visioning world politics*. New York: Routledge.
- Atkinson, D and Dodds, K. 2000. “Introduction, Geopolitical traditions: a century of geopolitical thought.” in K. Dodds and D. Atkinson(eds.). *Geopolitical traditions*. New York: Routledge.
- Bassin, M. 1987. “Race contra space: the conflict between German *Geopolitik* and National.” *Political Geography Quarterly*, Vol. 6, No. 2, 115~134.
- Blouet, B. 1987. “Political geographers of the past V: The political career of Sir Halford.” *Political Geography Quarterly*, Vol. 6, No. 4, 355~367.
- Brenner, N. 1999. “Beyond state-centrism? Space, territoriality, and geographical scale in globalization studies.” *Theory and Society*, Vol. 28, 39~78.
- Cohen, S. 2003. *Geopolitics of world system*. Lanham, Maryland: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 Choi B-D. 2003. "The New Imperialism, New Security Strategy of the U.S., and the Future of East Asi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ol. 38, No. 6, 887~905.
- Dalby, S. 1990. "American security discourse: the persistence of geopolitics." *Political Geography Quarterly*, Vol. 9, No. 2, 171~188.
- \_\_\_\_\_. 1993. "Critical Geopolitics." in J. O'Loughlin(ed.). *Dictionary of Geopolitics*.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 \_\_\_\_\_. 1994. "Gender and critical geopolitics: reading security discourse in the new world order." *Society and Space*, Vol. 12, 525~542.
- \_\_\_\_\_. 1996. "Reading Robert Kaplan's 'Coming Anarchy'." *Ecumene*, Vol. 3, No. 4, 472~196.
- Dalby, S and Ó Tuathail, G. 1996. "The Critical Geopolitics Constellation: Problematizing Fusions of Geographical Knowledge and Power." *Political Geography*, Vol. 15, No. 6 & 7, 451~456.
- Dijkink, G. 1996. *National Identity and Geopolitical Visions: Maps of pride and pain*. New York: Routledge.
- Dittmer, J. 2005. "Captain America's Empire: Reflections on Identity, Popular Culture, and Post-9/11."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95, No. 3, 626~643.
- Dodds, K. 2001. "Political Geograph III: critical geopolitics after ten year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25, No. 3, 469~484.
- \_\_\_\_\_. 2003. "Cold War Geopolitics." in Agnew, Mitchell and Toal(eds.). *A companion to Political Geography*. Malden, MA: Blackwell.
- Dowler, L. 2002. "Women on the frontlines: Rethinking war narratives post 9/11." *GeoJournal*, Vol. 58, No. (2 & 3), 159~165.
- Dowler, L and Sharp, J. 2001. "A Feminist Geopolitics?" *Space and Polity*, Vol. 5, No. 3, 165~176.
- Falah, G-W., C. Flint and V Mamadough. 2006. "Just War and Extraterritoriality: The Popular Geopolitics of the United States's War on Iraq as Reflected in Newspapers of the Arab World."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96, No. 1, 142~164.
- Flint, C. 1999. "Changing Times, Changing Scales: World Politics and Political Geography since 1890," in G. Demko and W. Wood(eds.). *Reordering the World: Geopolitical Perspectives on the 21st Century*. Boulder, CO: Westview Press.
- \_\_\_\_\_. 2006. *Introduction to Geopolitics*, New York: Routledge

- Flint, C and P. Taylor. 2007. *Political Geography: World-economy, Nation-state and Locality*. New York: Prentice Hall.
- Foucault, M. 1980. *Power/Knowledge*. New York: Pantheon.
- Gilmartin, M and E. Kofman. 2004. "Critically Feminist Geopolitics." in Staeheli, Kofman, and Peake(eds.). *Mapping Women, Making Politics*. New York: Routledge.
- Grant, R and J. Nijman. 1997. "Historical Changes in U.S. And Japanese Foreign Aid to the Asia-The Pacific Regi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87, No. 1, 32~51.
- Haraway, D. 1988. "Situated knowledges: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rivilege of partial perspective." *Feminist studies* 14, 579~599.
- Harvey, D. 1982. *The Limits to Capital*. Oxford: Blackwell.
- \_\_\_\_\_. 2003. *The New Imper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6. *Spaces of global capitalism: towards a theory of uneven geographical development*. London: Verso.
- Heffernan, M. 2000. "On the origins of European geopolitics, 1890~1920." in Dodds Kaus and Atkinson David(eds.). *Geopolitical traditions*. New York: Routledge.
- Hepple, L. 1986. "The revival of geopolitics." *Political Geography Quarterly*, Vol. 5, No. 4, 21~36.
- Heske, H. 1987. "Karl Haushofer: his role in German geopolitics and in Nazi politics." *Political Geography Quarterly*, Vol. 6, No. 2, 135~144.
- Howard, M. 1994. "The World According to Henry: From Metternich to Me." *Foreign Affairs* May/June.
- Hyndman, J. 2001. "Towards a feminist geopolitics." *Canadian Geographer*, Vol. 45, No. 2. 210~222.
- \_\_\_\_\_. 2007. "Feminist Geopolitics Revisited: Body Counts in Iraq." *The Professional Geographer*, Vol. 59, No. 1, 35~46.
- Johnston, R and J. Sidaway. 2004. *Geography and Geograph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aplan, R. 1994. "The Coming Anarchy." *The Atlantic Monthly*, Vol. 273, No. 2, 44~76.
- Kearns, G. 2003. "Imperial Geopolitics." in Agnew, Mitchell and Toal(eds.). *A companion to Political Geography*.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s Ltd.
- Kelly, P. 2006. "A Critique of Critical Geopolitics." *Geopolitics*, Vol. 11, 24~53.
- Luke, T. 2000. "Toward a green geopolitics: politicizing ecology at the Worldwatch Institute." in K. Dodds and D. Atkinson(eds.). *Geopolitical traditions*. New York: Routledge.

- Mamadough, V and G. Dijkink. 2006. "Geopolitic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olitical Geography: The Politics of Geopolitical Discourse." *Geopolitics*, Vol. 11, 349~366.
- McAlister, M. 2001. *Epic Encounters: Culture, Media, and US interests in the Middle East*.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ercille, J. 2008. "The radical geopolitics of US foreign policy: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logics of power." *Political Geography*, Vol. 27, No. 5, 570~586.
- Müller, M. 2008. "Reconsidering the concept of discourse for the field of critical geopolitics: Toward discourse as language and practice." *Political Geography*, Vol. 27, 322~338.
- Narangoa, L. 2003. "Japanese geopolitics and the Mongol lands, 1915~1945." *European Journal of East Asia Studies*, Vol. 3, No. 1, 45~68.
- Ó Tuathail, G. 1992. "Putting Mackinder in his place: material transformation and myth." *Political Geography*, Vol. 11, 100~118.
- \_\_\_\_\_. 1994. "Problematizing Geopolitics: Survey, Statesmanship and Strateg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Vol. 19, No. 3, 259~272.
- \_\_\_\_\_. 1996. *Critical Geopolitics*.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_\_\_\_\_. 2006. "Imperial Geopolitics/Cold War geopolitics/Twenty-First century geopolitics." in Ó Tuathail, Dalby and Routledge(eds.). *The geopolitics reader*. New York: Routledge.
- Ó Tuathail, G and Agnew, J. 1992. "Geopolitics and discourse: practical geopolitical reasoning in American foreign policy." *Political Geography*, Vol. 11, No. 2, 190~204.
- Ó Tuathail, G and S. Dalby. 1998. "Introduction: Rethinking Geopolitics, towards a critical geopolitics." in Dalby Simon(ed.). *Geopolitics*. New York: Routledge.
- Ó Tuathail, G., S. Dalby and P. Routledge, 2006. *The geopolitics reader*. New York: Routledge.
- O'Loughlin, J and Anselme, L. 1991. "Bringing geography back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spatial dependence and regional context in Africa, 1966~1978."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17, 29~61
- Paterson, J. H. 1987. "German geopolitics reassessed." *Political Geography Quarterly*, Vol. 6, No. 2, 107~114.
- Routledge, P. 2003. "Anti-Geopolitics." in Agnew, Mitchell and Toal(eds.). *A companion to Political Geography*. Malden, MA: Blackwell.
- Said, E. 2001. "The Clash of Ignorance." *The Nation*, October 22.
- Secor, A. 2001. "Toward a Feminist Counter-geopolitics: Gender, Space and Islamist Politics in Istanbul." *Space and Polity*, Vol. 5, No. 3, 191~211.
- Sharp, J. 2000. *Condensing the Cold War: Reader's Digest and American Identity*,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_\_\_\_\_. 2003. "Feminist and Postcolonial Engagements." in Agnew, Mitchell and Toal(eds.). *A companion to Political Geography*. Malden, MA: Blackwell.
- Sidaway, J. 2008. "The politics of Political Geography." in Cox, Low, and Robinson(eds.). *The SAGE Handbook of Political Geography*. London: SAGE publications.
- Sidaway, J., T. Bunnell, C. Grundy-Warr, R. Mohammad., B-G. Park and A. Saito. 2004. "Translating political geographies." *Political Geography*, Vol. 23, No. 8, 1037~49.
- Smith, N. 2000. "Is a critical geopolitics possible? Foucault, class and the vision thing." *Political Geography*, Vol. 19, 365~371.
- \_\_\_\_\_. 2003. *American Empire: Roosevelt's geographer and the prelude to globaliz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parke, M. 2005. *In the Space of Theory: Postfoundational geographies of the Nation-Stat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taeheli, L. 2001. "Of Possibilities, Probabilities and Political Geography." *Space and Polity*, Vol. 5, No. 3, 177~189.
- Staeheli, L and E. Kofman. 2004. "Critically Feminist Geopolitics." Staeheli, Kofman, and Peake(eds.). *Mapping Women, Making Politics*. New York: Routledge.
- Thrift, N. 2000. "It's the little things." in K. Dodds and D. Atkinson(eds.). *Geopolitical traditions*. London: Routledge.
- Ward, M. 1992. *The new geopolitics*. New York: Gordon and Breach.
- Yu Woo-ik. 1993. "The Northeast Asian Rim: A Geopolitical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ol. 28, No. 4, 312~320.

논문접수일: 2009. 1. 26

논문수정일: 2009. 5. 6

게재확정일: 2009. 5. 16